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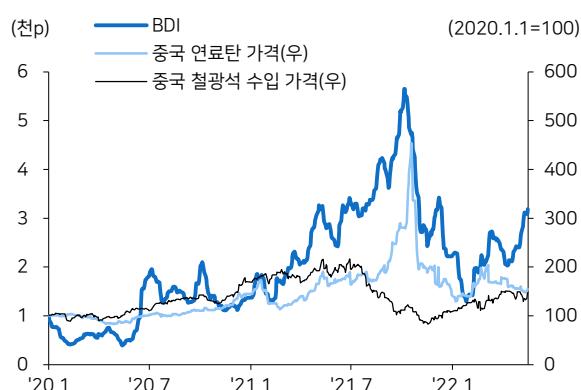
2022. 5. 19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3,189p(+9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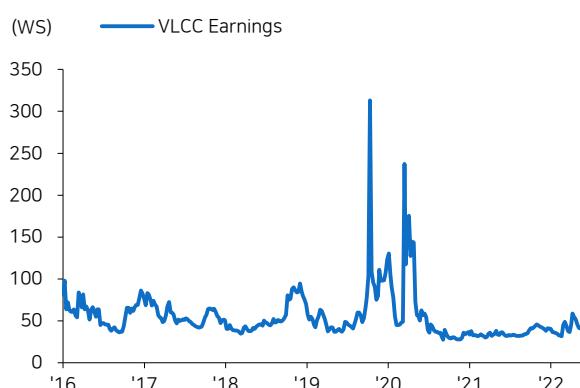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47.8(-15.9p WoW)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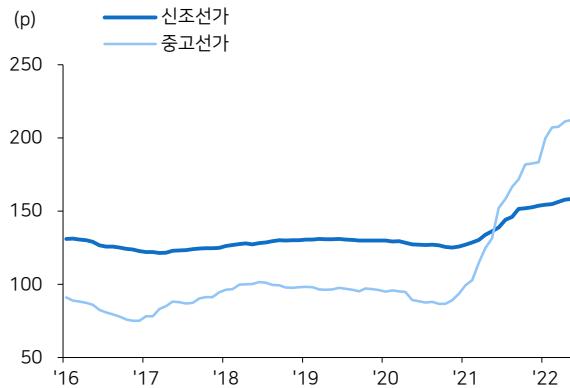
40.7p(-0.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3p(+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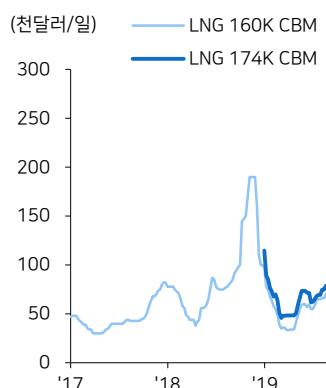
211.4p(+0.3p WoW)



LNG Spot 운임

59.0p(+10.5p WoW)

86.0p(+9.3p WoW)



항공시장 지표

254.9p(-14.0p DoD)

98.0p(-0.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전세계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몽골·보라카이 넓어진 하늘길

세계 각국이 COVID-19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해외여행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우리나라는 오는 23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함. 몽골정부는 6월 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에 최대 90일까지 무사증 방문을 승인함. 보라카이 직항편도 6월부터 개선됨. (에어진)

EU 15개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유럽연합 회원국 절반 이상이 16일부터 공항과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해제했다고 보도됨. 해당 조치는 버스, 지하철 등 전체 대중교통에 해당됨. (에어진)

컨선사 운항정시율 바닥찍고 반등…2개월 연속 상승

컨테이너선사들의 평균 정시운항률이 북미항로 적체 완화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보도됨. SealIntelligence에 따르면 3월 평균 정시운항률은 35.9%로, 전월대비 1.7%p 상승함. 2022년 1월 2011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30.4%를 기록한 바 있음. 상하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며 북미 항만 체선은 연초 대비 크게 개선 됐다고 설명함. 선박지연도착은 9개월 연속 7일대를 기록 중이라고 알려짐. (코리아쉬핑가제트)

Putin can't count on Xi to ride to the rescue

중국이 유럽이 제재하는 러시아산 자원을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도됨.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높은 원자재가격은 최소 당분간은 원자재 수입을 늘리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중국은 2021년 역대 최대 교역액인 1,500억달리를 기록함. 그러나 2022년 3월 세관 자료에 따르면 원유, 가스, 석탄 수입량이 전년대비 감소했고, 향후 몇 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짐. 3월말에는 봉쇄 조치가 없었기에 향후 수입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대우조선, 대금 미지급에 려 계약 해지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가 발주한 LNG운반선(쇄빙선)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러시아 선주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함. 해당 선박은 2020년 10월 발주된 LNG 운반선 1척임. 대금규모는 3,379억 원이고, 당시 발주되었던 나머지 2척도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Offshore rig supply gets tighter, sold-out market emerging

해상 시추설비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보도됨. 2022년 4월기준 jack-up 설비 가동률은 82%로 전년대비 4% 증가함. 이는 계약은 되어있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은 설비는 제외한 수치임. 미래에 계약된 시추설비까지 감안 시 Jack-up 가동률은 전년 86%에서 92%, 드릴십은 80%에서 89%, Semisubs는 77%에서 82%로 상승했다고 설명함. Westwood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85% 가동률에 도달하면 일일 운임 상승과 설비 재가동을 촉진할 것으로 설명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